

우리 나라 17세기 시문학에 구현된 반침략애국정신

김 명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끊임없이 달려드는 외적의 침략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낸 자랑스런 반침략투쟁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344페이지)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끊임없는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온 애국심이 강한 인민이다.

조선문학사에는 역사적으로 우리 인민의 반침략애국정신을 구현한 훌륭한 시작품들이 많이 기록되어있다.

1592년—1598년의 임진조국전쟁과 1627년의 정묘호란, 1636년의 병자호란을 계기로 17세기 조선문학사에는 반침략애국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진보적시인들의 노력이 작품들마다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리안눌과 권필, 차천로, 김창흡, 정두경, 리수광을 비롯한 많은 시인들의 시작품들에서는 전쟁의 엄혹한 시련속에서 발휘된 우리 인민의 반침략애국정신을 각이한 시적계기를 통하여 토로하고 민족적각성을 환기시키고있다. 이것은 17세기 진보적시창작경향의 일단을 보여주고 우리 나라 중세시문학의 가치와 의의를 부각해준다.

2. 본론

2.1. 17세기 반침략애국정신을 구현한 시창작의 사회문화적요인

임진조국전쟁과 정묘, 병자호란은 조선봉건왕조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연히 문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규제하였다.

17세기에 반침략애국정신을 반영한 시문학이 활발하게 창작된것은 이 시기 복잡다단한 사회적환경, 사회문화적요인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무엇보다도 7년간의 임진조국전쟁이 17세기이후 력사발전예 미친 커다란 영향과 교훈이다.

임진조국전쟁은 중세기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력사를 의의있게 장식한 전쟁의 하나였다.

7년간의 임진조국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승리할수 있는것은 전쟁의 기본담당자인 애국적인민들과 군인들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희생적으로 용감하게 싸운데 있었다.

리순신, 박재우, 김응서, 정문부, 권률 등 당시 이름을 떨친 군사지휘관들과 의병장들의 능숙한 전투지휘도 전쟁승리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임진조국전쟁이 승리로 끝났으나 침략자들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피해는 막대하였고 전쟁이 주는 교훈도 그만큼 큰 것이었다.

7년간에 걸치는 임진조국전쟁은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거대한 힘을 자각하게 하였고 전후 사회의 전반영역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내세우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반면에 봉건통치배들은 전쟁을 통하여 무능성과 비겁성을 여실히 드러내놓았고 전후에도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를 가시고 도탄에 빠진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킬 대신 권력쟁탈을 위한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치열하게 벌여왔다.

봉건통치배들은 별치 않은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의 비방중상을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병자호란때 침략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고있는 속에서도 척화파와 주화파로 갈라져 치열한 논쟁을 한 것이라든가 1659년 5월 효종의 상사와 1674년 2월에 효종의 비 인선 왕후의 상사시 상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두차례의 례론, 갑인(1674년), 경신(1680년), 기사(1689년), 갑술(1694년) 등 4차례의 환국(정국을 뒤집어놓는다는 뜻)이 일어나 서인과 남인사이에 부단한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 등은 17세기 당파싸움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이다.

17세기에 들어와 우심해진 당쟁은 조선봉건왕조를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하였으며 진보적인 문인들은 임진조국전쟁의 교훈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려는 의도에서 임진조국전쟁의 역사적현실을 반영한 시가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임진조국전쟁후에도 여전히 외세의 침략위협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였으며 새로운 전란이 계속된 것이다.

임진조국전쟁은 끝났으나 북방의 침략세력에 의해 전쟁의 위협은 의연 계속되었으며 외래침략자들에게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소극적인 항전태도를 취하고있는 봉건통치배들과 달리 애국적인민들은 또다시 반침략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었다.

정묘호란때인 1627년 2월 의병장 정봉수가 수십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통골산성으로 들어가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소위포의병부대가 2월 15일 덕천산에서 평화적주민들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한 적들을 불의에 기습한것을 비롯하여 정주와 선천, 룡천과 철산 등 청천강이북지역을 중심으로 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병자호란때에도 인민들은 국왕을 비롯한 통치배들의 투항주의적행동과는 달리 자기 고향과 마을을 지키기 위하여 용맹을 떨쳤다. 선천의 홍천감과 전세록, 지득남, 안주의 리여각, 평산의 민응남 등은 의병대를 조직하여 용감히 싸웠고 기타 평양, 경기, 호남일대에서도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줄기찬 투쟁이 벌어졌다.

임진조국전쟁후에 벌어진 두차례의 전란은 당시 사람들을 외적을 반대하여 떨쳐나서게 할수 있는 문학작품 그중에서도 다른 문학형태에 비해 짧으면서도 기동적인 시작품의 창작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이렇듯 임진조국전쟁과 뒤이어 일어난 정묘, 병자호란은 그 이후시기 많은 사람들이 외적에 대한 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로써 17세기 전기간에 걸쳐 반침략애국정신을 구현한 시문학이 줄기차게 창작될수 있었다.

다음으로 선진적인 사상으로 출현한 실학사상의 영향이다.

임진조국전쟁은 봉건통치층이 의거하고있던 주자성리학의 제한성을 로출시켰고 이것은 지봉 리수광과 반계 류형원을 비롯한 선진적인 지식분자들로 하여금 실지로 나라와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여 부국유민, 리용후생을 실현할데 대한 실학사상을 내놓게 하였다.

실학사상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은 국방사상이다.

실학자들은 임진조국전쟁초기의 패배상과 봉건통치배들의 무능성을 인정하면서 임진조국전쟁시기의 력사적교훈을 잊지 말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할데 대한 진보적인 국방사상을 내놓았다.

리수광은 《임진왜란때에 왕이 서쪽으로 피난가게 되자 국내가 텅 비고 적병이 사방에 차서 나라의 명령이 시행되지 못하여 거의 달포동안 무정부상태에 있었다. 이런 때에령남에서는 광재우, 김면, 호남에서는 김천일, 고경명, 호서에서는 조현 등의 발기에 의하여 의병이 소집되고 사방에 격문을 돌리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애국심이 양양되고 지방의 각 주, 군들에서 선비들이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장으로 청하는자가 무려 백명은 되였다. 그러므로 왜적을 섬멸하고 국가를 회복하게 된것은 곧 의병의 힘이었다.》고 하면서 봉건통치배들의 무능성과 의병들의 애국적행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리수광은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한 양병론, 장수론, 병기론을 제기하였다. 리수광은 양병론에서 군사를 착실히 꾸릴것을 주장하였다.

17세기 중엽에 실학을 체계화한 반계 류형원도 자기의 저서 《반계수록》에서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수단으로 된 군포법을 없애며 종래의 중앙군편성에서 일정한 장수에게 일정한 부대가 속해있지 않고 일정한 부대에 일정한 장수가 배치되어있지 않았던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부대가 고정된 장수의 지휘밑에서 훈련을 받으며 전투에도 참가하도록 할데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실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17세기에 실학자들을 비롯한 진보적인 지식분자들은 임진조국전쟁의 경험에 비추어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할데 대한 개혁적견해들을 내놓았고 이를 반영한 문학작품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였던것이다.

실학자들이 일단 유사시에 외래침략자들에게 대처할수 없는 국내의 안일한 상태와 무방비상태에 대하여 심각히 분석하고 애국적인 국방사상을 제기하였으나 태평성세만 부르짖으면서 안일한 생활에 파묻혀있던 통치자들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실학자들의 의도는 당시의 봉건사회제도하에서는 결코 실현될수 없었다.

2.2. 시문학에 구현된 반침략애국정신

2.2.1.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계기로 발휘된 애국심의 시적일반화

17세기에 우리 민족이 겪은 련이은 전란은 진보적문인들로 하여금 나라의 운명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작품에 반침략투쟁에서 발휘된 우리 인민의 애국정신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

1636년 청나라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왕과 봉건통치배들이 맺은 《화의》는 우리 인민

의 민족적의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진보적문인들로 하여금 이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게 하였다. 이들이 창작한 작품들에는 애국, 우국의 감정이 짙게 어려있었으며 외래침략세력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게 반영되어있었다.

치욕적인 《화의》를 반대하여 투쟁한 척화파인사들인 정온(1569-1641)과 김상헌(1570-1652)의 시를 비롯하여 장유(1587-1638)의 《보검》, 리안눌(1571-1637)의 많은 시작품들, 홍익한(1586-1637), 윤집(1606-1637), 오달제(1609-1637) 등 척화삼학사의 작품들과 김준룡(?-1641)의 《남한산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1586-1669)의 《삼전비》, 리소한(1598-1645)의 《탄금대》, 김정후(1576-1640)의 《밤에 두견새소리 들으며》, 김남중(1596-1663)의 《피로움을 잊으려고》, 조상우(1582-1657)의 《수항정에서》(3수), 정두경(1597-1673)의 시작품들, 김득신(1604-1684)의 《변방의 노래》(6수), 김창흠(1653-1722)의 《남한산성을 바라보며》, 《아침에 남한산성을 떠나며》, 《남한산성을 바라보며 짓는 노래》 등 많은 작품들에서 시인들은 각이한 시적계기를 통해 나라일을 걱정하는 우국지심을 토로하였다.

1636년 국방강화를 위한 10가지 방책을 작성제출하고 청나라의 침략이 감행되자 끝까지 싸울것을 주장한 정두경은 반침략애국주제의 시작품들을 많이 남긴 시인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전쟁을 전후하여 지은 시 《변방의 노래》, 《백마타고 출전하며》, 《김절도사에게》, 《수성성에서 밤에 피리소리를 듣고》, 《종군의 노래》, 《절도사 김준룡과 작별하며》 등에서 원썩격멸의 애국적지향을 다양한 소재와 시적계기를 통하여 폭넓게 노래하고있다.

시 《종군의 노래》에서는 8월 변방성에 뿔뿔이 시드는 광경을 대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계기를 설정하고 서정적주인공 - 병사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큰 공 세우라》는 고향사람들의 당부를 새겨안고 변방에서 또다시 한해를 보내면서 자기의 본분과 의무를 다해가는 애국적기개를 잘 보여주고있다.

성우에선 매일밤 슬픈 노래 울리고	城頭每夜悲歌動
전장터엔 어느때야 피자욱이 마르랴	磧裏何時戰血乾
새로 산 보검을 기둥에 걸어놓고	新買寶刀懸着柱
바라노라 장수따라 오랑캐목 벨것을	願隨飛將斬樓蘭

시에서는 오랑캐들을 쳐물리치는 전장의 처절한 환경을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어서 빨리 침략자들을 물리칠 결사의 각오를 다지는 서정적주인공의 비장한 심중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시 《절도사 김준룡과 작별하며》에서는 외적을 쳐부시러 나가는 전인민적인 투쟁감정을 바다로 흐르는 시내물에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절도사 김준룡을 고무격려하고 원썩을 격멸시켜주길 바라는 시인의 애국의 마음을 노래하고있다.

...

오랑캐 막는 싸움 더없이 급하니
그 누가 싸움터로 나갈 근심 하는가
장군이 말을 타고 달려나가면
갓옷입은 천명군사 웅위해가리

...

正屬防秋急
誰論出塞愁
將軍上馬去
千騎擁貂裘

《오랑캐 막는 싸움 더없이 급하니/ 그 누가 싸움터로 나갈 근심 하는가》라는 이 시구에는 바로 자기 하나의 안락보다도 나라 위해 싸우다 죽는것을 더없는 공지로 여기며 한몸바쳐 원수들을 격멸하기를 바라는 서정적주인공의 간절한 당부가 력력히 어려있다.

...

담장밑에 울고있는 벌레소리 피로워라
풀우에 떨어지는 락엽들도 근심일세
서쪽 국경으로 외적이 쳐들어온다니
서리발 긴 칼을 칼집에서 뽑노라

...

牆根苦聽虫吟鬧
庭畔愁看木葉凋
聞說西關邊警急
坐彈金匣劍光搖

우의 시는 김남중의 7언률시 《피로움을 잊으려고》이다. 시에는 서정적주인공이 병석에 있으면서도 서쪽 국경으로 외적이 침입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연히 떨쳐일어나 싸울 결의를 가다듬는 애국의 기상이 잘 나타나고있다.

김준룡의 서정시 《남한산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5언절구의 짧은 형식으로 유구한 역사를 두고 나라의 존엄을 지켜온 우리 인민의 불굴의 애국적기개를 훌륭히 표현하였다.

충신은 나라 위해 죽어야 하리
죽지 못한다면 그 무슨 충신이라
문득 일어서서 큰 칼을 휘두르노니
이 땅의 강물은 왜 덧없이 흐르는가

忠臣必死國
不死忠臣羞
蹶起舞長劍
江漢空自流

이것은 침략자들과 치욕적인 《화의》를 맺었다는 소식에 접한 시인의 피의 절규이다. 충신이라면 언제나 나라위해 결사의 각오가 되어있어야 하고 나라가 위급할 때 몸바칠수 없다면 충신이 아니라고 한 시인의 이 절규에는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애국심, 싸우지는 않고 《화의》를 주장한 주화론자들에 대한 강렬한 비난의 감정이 반영되어있다.

당시 세상에서 척화삼학사로 알려진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의 작품들과 조경의 《삼전비》, 김준룡의 《남한산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자전쟁의 불미스러운 결말을 반영하고있다.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은 전쟁이 일어난 당시 모두 태학관에서 학문연구에 힘쓰고 있던 비교적 나이젊은 선비들로서 치욕적인 《화의》를 반대하는 의로운 투쟁의 앞장에 서 있었다. 주화파의 집권자들은 《화의》가 이룩되자 그것을 반대한 이들이 적들에게 끌려가

스산한 이국땅의 무주고혼이 되게 하였다.

홍익한의 7언률시 《심양옥중에서 답청일에 느낀바 있어》, 윤집의 7언절구 《설달그믐날 밤에》, 오달제의 7언률시 《어버이생각》, 5언률시 《안해 남씨에게》 등은 자신의 앞날을 가늠할수 없는 이국의 옥중에서 지난날의 일들과 고향에 대한 생각, 부모처자에 대한 그리움을 읊고있다.

오달제의 시들인 《어버이생각》이나 《안해 남씨에게》에서는 이국에 끌려와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를 그리워하는 간곡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것을 조국애의 감정과 융합시키고있다.

우리 사랑 얼마나 소중한라	琴瑟因情重
서로 만난지 두해도 못되었네	相逢未二朞
만리길 아득히 헤어졌으니	今成萬里別
백년의 언약이 허사로구나	虛負百年期
먼먼 이국땅 편지인들 보낼소나	地闊書難寄
산도 아득하여 꿈길도 더디여라	山長夢亦遲
내 살아남길 바랄수 없으니	吾生未可卜
배안의 아이나 부디 잘 기르오	須護腹中兒

서정시 《안해 남씨에게》는 이렇게 자기의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제 더는 만날수 없다는것을 각오하고있는 서정적주인공이 안해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할수 있을만큼 진실하고 순결한 감정의 토로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척화삼학사중에서 오달제는 제일 젊은 20대의 선비였다. 그는 당시 늙었다고도 할수 있는 스물이 췌 넘어서 백년해로를 기약하였던것으로 하여 안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것인가를 폐부로 깊이 느끼고있었다. 그러나 먼 이국땅의 옥에 갇힌 몸으로 편지 한장 보낼수 없고 살아나가기를 바랄수 없는 처지에서 심중에 고패치고있는 뜨거운 마음을 《배안의 아이나 부디 잘 기르오》라는 절구에 담아 토로하고있는것이다.

시의 이 절구는 참으로 깨끗하고 절개굳은 인간의 심장의 메아리로 독자들의 심금을 강하게 울려주고있다.

이 시기 시문학에는 김정후의 7언절구 《우연히 읊노라》와 《밤에 두견새소리 들으며》와 같이 외적의 침입으로 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 나라가 당한 치욕에 대한 수치감을 강하게 토로하면서 애국의 감정을 환기시키는 작품들도 있다.

김정후의 2편의 서정시는 전쟁으로 나라가 당한 치욕을 두고 몸부림치는 인민들의 분노를 절절한 서정으로 노래하고있다.

시 《우연히 읊노라》가 전쟁으로 입은 조국의 상처를 두고 피눈물을 뿌리는 인민들의 분노를 토로하고있다면 시 《밤에 두견새소리 들으며》는 그 치욕을 씻기 위한 투쟁으로 만백성을 깨우치려는 비장한 결의를 보여준 작품이다.

동해의 물로 나라의 치욕을 씻어야 하리	東溟欲洗三韓恥
북극성처럼 그 누가 만백성의 마음 밝히려	北極誰明萬姓心

밤중에 나라 위해 한없는 눈물 흘리노니	半夜孤臣無限淚
두견새도 깊은 숲속에서 피 토하며 우누나	杜鵑啼血在深林

바로 이 시들에는 거듭되는 외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떨쳐 일어나 조국의 존엄을 지켜 영웅하게 싸운 우리 인민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정서깊은 시형상으로 일반화되어있는 한편 통치배들의 비굴성과 무능성때문에 굴욕을 겪은데 대한 시인의 울분이 진하게 흐르고있다.

조경의 고시 《삼전비》도 우와 같은 경향의 작품으로서 나라가 당한 수치에 대한 울분과 원쑤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강렬하게 맥박치는 작품이다.

시의 앞부분에서는 글씨를 잘 쓰고 문장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중히 여기며 아이들에게 명필들의 글씨를 본따라고 타이르고 그 이름 떨치기만 하면 못사람들이 우러러본다고 하면서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을 《신선》이라 한다는 전제를 주고있다.

그러나 시의 다음부분에서는 그 전제에 완전한 부정을 가하고있다.

...	...
누가 알라 사람의 일 기쁨이 뒤바뀔을	誰知人事喜反覆
문장 글씨 오히려 원쑤의 일을 도왔구나	文章書法還爲役
그대는 보지 못하였나	君不見
삼전나루의 일곱자 비석	三田七尺碑
물결치듯 호탕한 문장글씨 기이하도다	波瀾浩蕩螭尾奇
나란히 전자체로 새겨진 세명의 이름	復有篆額並三人
오랑캐 아이들속에서나 높이 떨치리	姓名藉藉於胡兒
...	...

시에서는 이처럼 강렬한 주정토로 삼전도의 비석에 글을 쓴자들을 역설적인 방법으로 예리하게 타매하고있다. 시의 마지막 결구에서 《더럽도다/ 문장과 글씨로 이름높은 자들/ 그 재간 조선에선 길이 찬양 받지 못하리》라고 웨치고있다. 시는 앞에서 제시된 전제를 완전히 뒤집는 특이한 서정전개방식으로 민족의 원쑤들에게 추상같은 저주를 보내고있는것이다.

김창흡의 시 《남한산성을 바라보며》, 《아침에 남한산성을 떠나며》, 《남한성을 바라보며 짓는 노래》에서는 조국방위성전에 떨쳐나 용감히 싸운 인민들의 애국적투쟁과는 대조되게 침략자들의 위세에 눌리워 겨레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비겁하게 행동한 통치배들의 용납할수 없는 처사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지사의 강개한 마음 끝이 없어	志士無窮慨
옛 고을 찾아와 눈물 흘리는데	由來涕古州
긴 강도 수치를 흘려보내지 못하여	長江未流惡
물 마시는 말조차도 부끄러워하네	飲馬有餘羞

...

...

(시 《남한산성을 바라보며》)

시에서 긴 강도 수치를 흘러보내지 못하여 강물을 마시는 말도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은 패전의 수치감에 대한 가슴아픈 심정을 대변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시 《아침에 남한산성을 떠나며》에서 시인은 높다란 성가퀴와 요란한 무기고를 차려놓았건만 《어찌하여 오랑캐를 막지 못했나》라고 반문하면서 력사의 그 교훈을 되새겨볼수록 도무지 진정할수 없는 자기의 비분강개한 심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

...

큰 강은 망망히 흐르고	大江走茫茫
가을의 찬기운 거친 배옷 뿜고든다	秋氣布寒蕪
강개한 이 마음 또한 속절없어	感慨亦徒然
먼길을 찾아 오르내렸어라	登降惟脩塗
삼전비엔 오랑캐글 새겨있으니	三田有胡碣
현성엔 썩은 선비만 있었더라	玄城有腐儒

또한 시 《남한산성을 바라보며 짓는 노래》에서는 고구려의 호걸들이 마련한 전통이 있고 험준한 지세가 있어도 《위기보다 먼저 안전만을 생각》한 위정자들의 처사로 나라가 전례없는 수치를 당했다고 하였으며 시 《다시 짓노라》에서도 《방비책을 모두 갖추었더라면/ 리해관계 세밀히 따져봤을》것이라고 하면서 적들이 요해지를 모두 에돌아 쳐들어온 다음에야 부랴부랴 론쟁만 거듭한 조정의 추태에 환멸을 금할수 없다고 노래함으로써 남한산성에서 당한 치욕의 근원을 무능하고 비겁한 썩은 선비들과 량반통치배들에게서 찾고있다.

2.2.2.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할데 대한 지향

련이어 겪은 전란과 그 이후의 정세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고 나라를 걱정하는 문인들은 국토방위의 애국적지향을 반영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리안눌의 시 《8월에 배꽃이 활짝 피여》를 비롯한 여러 시작품들, 장유의 《변방의 노래》(3수), 김창흡의 《백전가》, 김득신의 《변방의 노래》(12수), 강유(1597-1668)의 《밤에 풍악소리 들으며 느낀바 있어》, 박세당(1629-1703)의 《회령가는 길우에서》, 《북쪽싸움터로 가는 려성제에게》, 정두경의 《김사탁을 종성으로 보내면서》, 《함경도관찰사 리시를 보내며》, 《의주로 가는 리사강과 작별하며》, 리수광의 《변방의 노래》(6수)와 같은 작품들은 북쪽변방을 강화할데 대한 지향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리안눌의 시문학에서는 후금과의 전쟁을 전후하여 시시각각 다가오는 외적의 침략위험에 경종을 울리면서 국방력을 강화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시 《흰머리칼을 뽑으며》, 《8월에 배꽃이 활짝 피여》, 《영훈루좌석에서 여고, 자방 두 종사에게 주노라》 등에는 침략위험이 가증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가 국방강화에 대

한 강렬한 주장과 결부되어 토로되고있다.

특히 1618년에 창작한 시 《8월에 배꽃이 활짝 피여》에서 시인은 통치배들속에서 태평성대만을 부르짖으며 군사를 소홀히 하고 사치와 향락만을 일삼는 풍이 만연되는데 대하여 이렇게 타매하고있다.

신묘년 중구절 송도길 가다보니	辛卯九日松都路
집집마다 배꽃 피여 나무모습 새로워라	家家梨花樹樹新
지금쯤 강화도엔 가을이 한창이려나	如今江郡仲秋月
배꽃은 가지 가득 그뿐하게 피였구나	梨花滿枝開正均
꽃꽃들이야 계절을 어길수 없겠지만	群芳不敢乖常候
한해에 봄철이 두번 다시 있으랴	一歲偏能占兩春
늙은 몸이 조물주의 뜻 어이 알라	老子焉知造物意
인간세상 임진년처럼 될것 같아 근심되네	坐憂人世似壬辰

시인은 계절에 맞지 않게 피어난 배꽃을 보며 임진년 같은 사태가 들이닥칠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있다. 여기에는 쓰라린 교훈을 망각하고있는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혐오, 나아가서 또다시 파국으로 떨어지는 나라의 운명에 대한 심각한 경고의 목소리가 깔려있다고 할수 있다.

한밤중에 변방봉화 온산에 타번지니	半夜邊庭火滿山
뿔나팔 부는 소리 군영에 울리누나	角聲吹月列營間
새벽녘 기마정찰 돌아와서 하는 말	平明探騎來相語
십만의 오랑캐 북쪽관문 다달았다네	十萬胡雛近北關

이 시는 리수광의 시 《변방의 노래》(제5수)이다.

시에서는 《한밤중에 변방봉화 온산에 타번지》자 뿔나팔을 울리며 출동준비를 서두르는 군사들의 모습과 《십만의 오랑캐 북쪽관문 다달았다》는 기마정찰의 말을 통하여 북쪽 오랑캐들의 침입으로 긴장된 북방정세를 정서적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7언절구의 짧은 시형식으로 변방을 강화해야 할 절박성을 자연스럽게 펼쳐보이고있는 이 시는 17세기 초엽에 들어서면서 날을 따라 긴장해지는 북방변경의 정세에 한시바빠 대처할데 대한 시인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어있다.

김창흡의 시 《백전가》는 금화현에서 벌어진 군사훈련모습을 목격하고 지은 시이다. 령서지방 10개 군의 군사를 망라하여 오성산 북쪽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말타기, 활쏘기, 진법숙달 등 장관을 이루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지만 시인은 군사훈련의 실태에 비해볼 때 매우 한심한 국방상태를 우려하고있다.

...

진짜 적을 만나면 이렇게 될런지

...

遇敵真能若此否

서북변방 큰 걱정 가볍지 않다네

西北憂大未可輕

...

...

유독 조선만 싸울만 한 군사 없나니

朝鮮獨無兵可戰

훈련원, 어영청은 빈 이름뿐이구나

訓局御營徒虛名

속오군은 더우기 근심스러운데

束伍爲軍尤草草

10년에 한번 훈련하여 어찌 된다더냐

十年一鍊何由成

비 튕기는 갑옷엔 푸른 이끼 돋고

雨擲金甲生綠苔

투구엔 거미줄, 활집엔 구멍 송송

蛛懸虎韞韜流星

갑자기 일 터지면 서둘러 닦고가니

猝聞期會始磨拭

하물며 상벌조차 분명치 않구나

況乃賞罰未分明

오호라 이런 군사 적과 마주친다면

嗚呼以其卒與敵

무기만 잡았을뿐 견고하지 못하리니

只坐器械未堅精

군사훈련 안되었으니 장군인들 온전하랴

卒不服習將豈全

나라의 운명이란 군사에 달려있다네

國命存活隨軍情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조선봉건왕조는 뒤늦게나마 훈련도감, 어영청을 설치하고 고정된 통솔체계를 골자로 하는 속오분수법(속오법)을 새로 적용하였고 17세기에 들어와서는 군사장비를 개선하기 위한데 일정한 관심을 돌리었다.

그러나 문존무비의 악습으로 군영책임자는 대부분 군사에 무식한 문관이 임명되었고 군포제도는 수탈공간으로 전락되어갔다. 군총(군인수)은 명색상 늘어났지만 상비무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훈련체계가 문란해져 무술훈련은 고사하고 장구류태반이 녹이 쓸어 못쓰게 되는 형편이었다.

시에서 푸른 이끼 덮인 갑옷과 구멍 뚫린 활집, 거미줄 엉킨 투구 등은 바로 이처럼 지상공론으로 되어버린 국방강화를 개탄하며 그 후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형상적으로 부각시키고있다. 시인은 계속하여 《병자년의 패전이 여기서도 계속》된다고 애타게 절규하면서 실지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군력강화에 힘쓸것을 강조하고있다.

정두경의 시작품들에도 북부국경으로 떠나가는 친구들을 배려우며 국경방위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다.

특진의 하나인 종성으로 떠나는 지방관들을 전송하면서 지어준 시 《김사탁을 종성으로 보내면서》와 《김원립을 종성으로 보내며》는 바로 북방오랑캐들의 침입에 대처하여 나라의 북쪽관문을 굳건히 지켜줄것을 간절히 바라는 서정적주인공 — 시인의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는 작품들이다.

...

...

국경은 오랑캐땅과 이웃해있고

地隣獯鬻氏

하늘끝에 큰 강이 흐르고있네

天限大江流

변경을 지키는것 본분이거니

橫槊猶堪賦

수주에는 근심이 없어지리라

愁州不必愁

이 시에서 시인은 김사탁이 종성에 새로 생겨난 거진에 임명되어가는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오랑캐의 침입으로부터 변경을 굳건히 지켜줄것을 간절히 부탁하고있다. 시인의 절절한 이 당부에는 바로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대한 애국의 념원이 짙게 어려있다.

정두경은 일본의 침략에도 경각성을 높일데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일본가는 사람에게》, 《서장관 신택유를 바래우며》(2수), 《통제사 리현달에게》(3수), 《경상관찰사 목성선을 바래우며》 등의 작품들이 그 대표작이다.

시 《통제사 리현달에게》(3수)는 동남해안일대의 지방관직에 파견되어가는 리현달을 전송하면서 지어준 작품으로서 여기에는 왜놈들의 재침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해안방비를 강화할데 대한 지향이 토로되고있다.

장막안의 병부는 통제사의 징표요	臥內兵符闔外分
싸움배는 모두다 장군에게 배속됐소	樓船盡屬李將軍
동쪽을 바라보면 해돋이가 장쾌하니	欲從陽谷觀朝日
룡천검 틀어쥐고 검은구름 결판내오	須把龍泉決海雲

(제1수)

루에 올라 하늘 보면 별들이 빛나는데	登樓南望斗牛高
그 기상 장군의 보검에 어려있소	氣在將軍七寶刀
동해에서 한번은 칼 쓸 때가 있으리니	爲向扶桑須一試
왜놈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오	海鯨常欲作風濤

(제3수)

보는바와 같이 시 《통제사 리현달에게》는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왜적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일것을 전란의 교훈으로 거듭 환기시키고있다.

정두경의 시작품들은 남북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애국적투쟁과정에 체험된 시인의 원쑤격멸의 기개와 강렬한 호소로 일관된 조국방위지향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이 시기 반침략투쟁주제의 시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2.2.3. 반침략투쟁에서 무훈을 세운 인물들에 대한 찬양

임진조국전쟁은 17세기에 들어와서도 의연히 문학의 형상원천으로 되었으며 특히 전쟁에서 발휘한 애국적인물들의 위훈은 민족의 자랑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이 시기 반침략투쟁주제 시작품들에서도 무시할수 없는 주제분야를 이루고있었다.

김창흡의 《홍의장군의 노래》, 《진주 축석루》, 리원형(17세기 전반기)의 《나라 위해 죽은 기생을 추모하여》, 리기설(1558—1622 자: 공조, 호: 련봉)의 《병정의 안해》, 정두경의 《동해의 용감한 너인》, 《송둔암의 <렬녀전>에 쓰노라》 등이 그 대표작이다.

대표적으로 김창흡의 시를 들수 있다.

시 《홍의장군의 노래》는 전쟁초기의 어려운 나날에 의병투쟁의 첫 봉화를 지펴올린

박재우(1552-1617 자: 계유, 호: 망우당)의 애국적위훈과 깨끗한 량심을 찬양하고있다.

시의 첫머리에서 임진년간에 왜적을 친 의로운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박재우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

싸움터에서 백마타고 종횡무진하면
붉은 옷 한번 봐도 왜적들 기겁했네
주춤거리며 감히 맞서지 못하였고
마침내 부딪치면 폭풍치고 불 일었지
총탄이 비오듯 해도 흰 말갈기 휘날리고
철갑들이 퇴각할 때 전포자락 가벼웠네

...

登陣白馬似橫行
一望紅衣衆倭驚
逡巡不敢與交鋒
乃至相薄風火生
砲丸雨落雪鬣騰
鐵甲潮退霞袍輕

시의 전반부가 홍의장군 박재우의 기상과 지략에 넋이 나간 왜놈들이 어찌할바를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쓰러지는 물골을 통쾌한 심정으로 부각시키었다면 후반부분에서는 주로 전쟁이 끝난 후 그가 보여준 청렴결백한 품성을 노래하는데 바쳐지고있다. 여기서 시인은 《큰 공을 세우기보다도 그다음 치신이 더욱 어려운것》인데 박재우는 온 나라가 받드는 영웅으로서 조정의 높은 표창과 벼슬도 마다한채 초야에서 조용히 여생을 마친데 대하여 뜨거운 찬양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특히 의령땅에 돌아온 그가 전날의 용맹한 의병장모습과는 달리 차그마한 오막살이집 하나를 지어놓고 송화가루주머니와 낚시대가 실린 쪽배를 타고 고향의 산수를 즐긴 세부묘사에 력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깊은 마음 당시에는 헤아릴수 없었으나
오랜 세월 흐른 지금 그 마음을 보겠구나
홍의장군이여 그대는 아름다운 노래라
그대의 옛 터전에 말 세우고 노래하노라

當時人未測淵深
後來往往見其心
紅衣將軍可作歌
立馬遺墟一長吟

박재우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걸고 싸운것은 결코 명예나 보수를 바란데서 출발한것이 아니였음을 시인은 시에서 강조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입으로만 나라방비를 떠들다가도 정작 국난이 닥쳐올 때에는 일신의 안일부터 생각하던 부패한 봉건관료들과 다른 박재우의 애국정신과 인간적품모에 공감된 시인의 열정적인 토로이다.

한편 차운로의 시 《박재우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쳐 여러차례 공세우다》에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무훈을 떨친 박재우를 잃은 애석함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붉은 옷 입고 요사스런 적 쓸어버렸어라
백발 되어 산골에 살면서도 나라를 사랑했네
하늘세상 신선을 지켜주지 못하듯이
인간세상 이제는 광장군을 잃었구나
풍운을 휘잡아 오랑캐의 기세를 평정하니
옥돌을 다듬어 나라 위한 그 기개 새겼구나

朱衣當敵掃妖氛
白首棲山尙愛君
天上難期赤松子
人間今失郭將軍
風雲鬱結平蠻氣
玉石雕鐫奉國文

저 멀리 령남을 향하여 눈물은 하염없다 遙向嶺南揮老涕
굳센 녀은 그 어디 외로운 묘에 의지했구나 毅魂何處託孤墳

시는 임진조국전쟁에서 커다란 무공을 세운 박재우가 사망한 1617년에 창작된것으로 보인다.

작품에서는 임진조국전쟁에서 홍의장군으로 왜적을 쳐부시는데 크게 공헌한 박재우는 옥돌에 새겨져 그 이름이 후세에 전해질것이라는 믿음이 노래되고 한편 《굳센 녀은 그 어디 외로운 묘에 의지했구나》와 같은 시구절을 통하여 당시 어수선한 나라정세에 대처할 인물이 없는데 대한 한탄과 애국적인물을 잃은 시인의 슬픔을 표현하고있다.

실학자이며 시인이었던 리수광의 작품들에는 애국명장 리순신에 대한 뜨거운 추모의 감정과 함께 조국의 운명을 두고 걱정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가 진실하게 형상되고있다.

시 《통제사 리순신의 전사를 애도하여》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위엄 높은 그 이름에 원썩들 전몰하고 威名久懾犬羊群
세상 휩쓴 기이한 공 천하에 소문났네 盖世奇功天下聞
섬오랑캐 도망쳐간 바다엔 달 밝더니 蠻侵夜收湖外月
장수별 떨어지고 새벽구름 자욱하다 將星晨落海中雲
파도는 영웅의 한 씻어줄 길 없어도 波濤未洩英雄恨
력사는 길이 전하리 원썩친 그 위훈을 竹帛空垂戰伐勳
오늘날 남아를 누구누구라 하라 今日男兒知幾箇
슬프고나 충의로운 리순신장군이여 可憐忠義李將軍

보는바와 같이 시에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바다에서 왜놈들의 수륙병진작전을 파탄시키고 전쟁승리를 위해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리순신에 대한 끓어오르는 추모의 정과 그의 높은 애국심을 다양한 감정의 교차로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그러면서 작품은 단순히 명장의 죽음에 대한 비통한 감정을 보여주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이것을 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함께 리순신과 같은 인물이 없는데 대한 개탄의 감정과 결합시키고있다.

리수광의 시 《충민사》역시 이와 같은 경향의 작품들이다.

조국을 지켜싸운 제일가는 장군이여 第一中興將
갖은 험난 무릅쓰고 우리 나라 건졌다네 艱難活我東
산과 강엔 증오의 그 기백 남아있고 山河餘怒氣
하늘땅엔 영웅의 그 풍격 서려있네 宇宙有雄風
대마도의 봄파도는 고요히 잠들고 對馬春濤息
동해의 암운도 어느덧 개였구나 扶桑曙霞空
지금도 바다에선 왜적이 엿보나니 至今滄海上

누가 다시 원쑤 친 장군의 큰 공 이을소냐 誰復嗣戎功

시에서는 임진조국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고 하지만 나라의 정세는 여전히 긴장하고 《바다에선 왜적이 옛보》고있으니 리순신과 같이 조국을 지켜싸울 장군이 없음을 한탄하고있는것이다.

17세기 한자시인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석주 권필은 나라를 지켜선 인민들의 투쟁모습과 애국정신, 왜적의 발굽밑에 신음하는 인민들의 처지를 반영한 작품을 창작하였다.

변방기슭에 찬서리 내리고	
기러기 남으로 날아가네	交河霜落雁南飛
구월이 되어도 포위된채	
금성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구나	九月金城未解圍
원쑤와 싸우다 쓰러진 님	
안해는 그 소식 못 듣고서	征婦不知郎已沒
밤길도록 홀로 앉아	
겨울옷 지어 보내려 다듬이질하네	夜深猶自擣寒衣

이것은 7언절구로 된 시 《병사의 안해》이다.

시에서 시인은 남편을 원쑤치는 싸움에 떠나보내고 후방을 억세게 지키며 전선지원에 지성을 바쳐가는 안해의 높은 정신세계를 펼쳐보이면서 원쑤 왜적에 대한 끝없는 증오를 안고 불행과 고통을 곳곳이 이겨나가는 후방여성들에 대한 찬양의 감정을 뜨겁게 전달하고있다.

김창흡의 시 《진주 축석루》와 리원형의 《나라 위해 죽은 기생을 추모하여》, 리기설의 《병정의 안해》, 정두경의 《동해의 용감한 녀인》, 《송둔암의 〈렐녀전〉에 쓰노라》 등은 임진조국전쟁시기 판료도 군인도 아닌 평범한 녀인들이 발휘한 애국적장거를 격조높이 찬양한 작품들이다.

김창흡의 시 《진주 축석루》에서는 적장을 안고 사품치는 강물에 뛰어든 론개의 애국적장거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 조선여성들이 발휘한 슬기와 애국심을 잘 보여주고있다.

한편 정두경의 시 《동해의 용감한 녀인》은 원쑤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을 간직한 한 녀인이 연약한 녀성의 몸으로 원쑤의 가슴팍에 비수를 박은 이야기를 통하여 원쑤와의 대결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조선녀성의 애국적기상과 영웅적기질을 칭송하였다. 그런가 하면 《송둔암의 〈렐녀전〉에 쓰노라》에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원쑤를 갇은 한 렐녀에 대하여 《영웅다운 그 명성 누구와 견주리오/ 이름난 옛 녀인은 렐녀에게 못미치리》라고 찬양하였다.

작품들은 전쟁에서 발휘한 조선여성들의 애국심 나아가서 천대받던 인민들이 전쟁에서 발휘한 희생정신을 진실하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의의를 가진다.

3. 결 론

17세기에 창작된 반침략애국정신을 구현한 시작품들은 비록 애국, 우국의 리념과 민족의 얼을 지키려는 지향을 반영한 작품들일지라도 여기에는 창작자들의 세계관적 및 계급적제한성이 있다.

진보적시인들이 제창한 애국주의는 어디까지나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전제로 하는 봉건국가를 지키고 유지, 공고화하려는데로 지향되고있으며 그들의 애국심은 봉건적충군사상과 밀접히 결합된것이다.

그러나 거듭되는 전란으로 나라에 위기가 조성되던 시대에 반침략애국정신을 구현하려고 한 17세기의 시문학작품들은 우리 나라 중세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애국정신을 구현한 민족의 시가유산들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발굴연구하여 민족문화유산을 풍부히 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실마리어 애국정신, 민족의식, 한자시